

농민·소상공인·취약층 ‘상생 네트워크’ 구축

전남도, 공기업·금융기관·대기업 참여 사회적 약자 돕기
농산물 생산·유통·소비 혁신 도모 하고 사회적 안전망 구축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농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와 공기업, 금융기관, 대기업 등이 이들을 돕기 위한 상생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전남도는 1일 “최근 농민·소상공인·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상생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소비자원, KB국민은행, SK텔레콤 등과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가한 기관·기업들은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 단계에서 각각 혁신을 도모해 농민은 재고를 받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은 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농민과 소상공인 간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산지 공급 체계 구축과 판로 개척을, aT는 올해 본격

추진될 농산물 온라인 산지경매 등을 활용해 농민과 소상공인 간 직거래 시스템 안착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외식업중앙회·상인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농민·소상공인 간 농산물 직거래를 각각 지원하게 된다.

소비자원은 못난이(등급 외)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가치소비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KB국민은행’은 농산물 직거래 참여자 간 공정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급 결제 서비스를 추진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 외에도 전남도는 이번 협약에 이어 농산물 생산자와 수요자 간 공정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련 벤처기업과 전문기업 등이 참여한 협업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상품성이 없어 버려지는 못난이 농산물의 상품화를 통해 비상품과의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이 같은 농산물의 판로개척을 통해 농가 실익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고흥으로 귀농해 친환경 재배 방식으로 올리브 노지재배에 성공한 이윤덕(맨 오른쪽)대표와 동료들. <전남도 제공>

고흥 귀농 새내기, 친환경 올리브 재배 성공

농업법인 팜스팜스

2년째 재배 내년 첫 수확

그리스 등 지중해 국가가 주산지인 ‘신의 과일’로 불린 올리브를 귀농 새내기 농부들이 참여한 전남의 한 법인이 재배에 성공해 눈길을 끌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흥 농업법인 팜스팜스’는 고흥과 순천 일대 농경지 1.3ha(340주)에서 2년째 올리브를 성공적으로 재배, 내년 첫 열매를 수확할 예정이다. 올리브는 1000년 이상 자라는 미래소득 작목이다. 세계적으로 약 1400종이 넘는 품종 중 열매를 생산한 품종은 80여종에 불과해 품종선택에 신중을 기해왔다.

이를 위해 ‘팜스팜스’는 DNA검사를 통해 남해안지역 기후와 적합하고 열매 생산이 보장된 만자날로(Manzanillo), 아스코라나(Ascolana) 등 품종을 엄선해 재배하고 탄저병, 까치벌레 등 병해충에 대해서 친환경 약제를 이용하고 있다. 이윤덕 대표는 20대 때 프렌치 셰프로 근무할 당시 올리브를 식재료로 사용한 것을 계기로 일본에서 20년간 올리브

농업에 종사, 농가에 기술을 보급했으며 열매를 수확·가공해 농촌융복합산업까지 성공으로 이끈 베테랑 농부다.

귀농 준비도 철저했다. 우선 국내산 올리브 기름과 피를 생산을 목표로 1년 6개월간 거제·남해 등 남해안 지역 65곳을 조사한 뒤 시험 재배에 나서 고흥서 열매 수확이 가능한 것을 확인 후 지난 2018년 귀농했다.

이대표는 “수입산 보다 좋은 품질의 올리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역에 적합한 우수 품종과 재배기술 개발·보급에 앞장설 것이다”며 “올리브 잎과 열매를 가공해 체험과 관광까지 아우른 농촌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법인에 참여한 농업인들은 모두 귀농 2년차 새내기 농군이다. 법인 이사인 김건년씨(59), 정영근씨(63)는 각각 서 울서 건설업과 H자동차 이사로 근무했다. 막내인 김근수씨(30)는 중국과 미국에서 유동분야를 공부한 유학파다.

이들은 내년 유기농산물 인증을 비롯 2022년 세계올리브협회에 올리브 인증 농가 등록, 22025년 한국 올리브협회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담양 담빛길 창작공간

‘문화특화지역 조성’

전국 우수사례 선정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의 올해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전남도가 추진 중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문화시설 및 운영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균형발전사업 평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매년 지자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된 사업 중 사·도 추천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올해 전국 사·도에서 46건의 우수사례가 추천됐다.

이 가운데 전남에서 선정된 사업은 담양 ‘담빛길 창작공간 조성사업’이다. 담양을 객사리와 지침리 일원에 담빛길 창작공간 조성을 비롯 라디오스타 스튜디오 구축, 해동문화예술촌 조성, 구 관사를 인문학 거점(문화지소)으로 리모델링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됐다.

평가 위원들은 지역 고유 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해 담양만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에 어울린 창작공간을 마련함과 함께 독특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목시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우수사례 선정에 따라 전남도는 포상과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국가 균형발전위원회가 발간할 우수사례집에 포함돼 전국적인 홍보도 이뤄진다.

정명섭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전남은 오래된 것들을 잘 간직하고 있어 이를 활용해 잘 숙성된 문화예술 기반을 넓혀 간다면 도민들의 삶에 윤기가 날 것”이라며 “시·군과 협력해 문화시설과 창작기반을 확충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적조 피해예방 ‘현장대응 체제’ 돌입



전남도는 적조 피해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적조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현장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최근 고수온 주의보 발령과 함께 장마가 소멸한 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돼 적조가

지나해보다 조기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적조 발생 우심해역 60개 지점에 대해 매일 정가예찰을 벌이고, 연안 16개 사·군의 적조 명예감시원 101명을 활용해 수시예찰 중에 있다.

또 특보발령 시기동태관망 운영과 방제활동 지원 등으로 비상상황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7월 고흥군 우두해 상에서 실시한 민·관·경 합동방제 사전 모의훈련 장면. <전남도 제공>

전남도, 임대사업소 65개소 ‘농기계 임대료 인하’ 연말까지 연장

3월부터 감면액 10억8000만원

전남도는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를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법무부 외국인 출입국 정책의 근로자 입국 보증 주체가 지자체에서 정부로 강화됨에 따라 수확철 외국인 근로자 투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농가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일손 부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번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는 전남도내 모든 임대사업소 65개소에서 실

시된다.

가중별 임대료 평균 인하폭은 농용굴작기의 경우 9만원에서 4만5000원으로, 트랙터는 8만원에서 4만원으로, 땅속작물수확기 1만원에서 5000원 등으로 감면된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한 농업인은 가까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철송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농가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인하 연장을 추진했다”며 “많은 농가들이 저렴

한 가격으로 농기계를 임대해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3월 광역단위 최초로 농기계 임대료 감면 방침을 수립했으며, 임대사업소가 없는 목포시를 제외한 도내 모든 시·군에서 4월부터 7월까지 농기계 임대료의 50% 이상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줬다. 지난 6월 말 이용 농가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12% 증가했고, 감면액은 10억8000만원에 달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추석맞이 ‘전남 사회적경제 제품’ 비대면 판촉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와 침수피해 여파로 판로 확보가 어려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전남도가 오는 9월 25일까지 전남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비대면 판촉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번 판촉활동은 전남사회적경제소핑몰인 ‘녹색나눔’을 비롯 우체국쇼핑몰, 쿠팡, 11번가,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지마켓, 옥션, 카카오톡 등 대형 온라인몰에서 펼쳐진다.

제품은 1만원대 실속 선물세트부터 11만원대 고품격 선물세트로, 사회적경제기

업 우수상품을 최대 33%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 역·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리플릿을 비치해 일반인들의 구입을 유도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대면 장터를 추진해 상처림 농수산물 등을 사전에 주문받아 판촉을 이룰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전남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홍보 동영상 제작, 오는 10월부터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채널을 통해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 상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단 QR코드를 참고하세요

알고 계신가요?

-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1%~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 대출
-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2.4%~4.4%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지역특화사업 지원 (대우, 한화, SK, LG 등)
- 지역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돕는 지원센터 설치

평생 어부바

신협 815^{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의처 266-4150

문의처 573-4150

문의처 528-4150

문의처 513-4150

문의처 572-4150

문의처 576-4150

평생 어부바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의처 266-4150

문의처 573-4150

문의처 528-4150

문의처 513-4150

문의처 572-4150

문의처 576-4150